

2025년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시각예술/활동지원) 심의 총평

2025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의 시각예술분야는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설치, 사진, 일러스트,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우수한 기획과 크리에이티브한 예술을 지향한 지원서가 많이 확인되었다.

본 심의는 김포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주체의 역량, 예산의 적절성, 지속 가능성 이외에도 재단의 공익성과 홍보 및 이 슈적인 측면, 다양성 등을 추구했다.

본 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기획성과 예술성을 가장 높은 심의 기준을 삼았으며, 그 외에도 재단의 역할이 요구되는 공익성과 다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심의 논의를 진행했다.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을 볼 때에 정재성 작가의 “한바탕 쏘고, 찌르고, 다듬고”가 전체적인 심의위원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김지희 작가의 개인전 역시 기획적인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김포의 특성을 잘 반영한 예술기획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아트, 복합적인 시각물 들의 기획이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체적으로도 김포 예술인들의 예술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단, 장애인들의 활동이 인상적이었지만, 기획과 작품성에 조금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의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 일치했으며, 이번 평가와 지원을 기반으로 김포의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